

“서양인 최초 승려는 아일랜드 출신 방랑객”

이언 로튼 감독, 담마로카 스님 애니메이션으로 제작

담마로카 본명은 '로렌스 캐롤'
19세기 아일랜드 더블린 출생
미얀마·태국·네팔 등서 활동
영국 제국주의·복음주의자에 저항

서양인 최초 승려의 삶을 조명하는 애니메이션이 제작 중에 있어 화제다.

아일랜드 출신 이언 로튼(Ian Lawton) 감독은 아시아 지역서 기독교를 전파하려는 복음주의자들과 영국 제국주의에 맞서 저항했던 담마로카(U Dhammaloka · 1856~1914) 스님의 삶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고 있다. 애니메이션 제목은 'The Dharma Bum' 이다.

“담마로카 스님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이 분이 오스카 와일드, 마이클 폴리스, 다니엘 오코넬처럼 아일랜드 역사에 이름을 남긴 한 인물이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분명 아일랜드의 영웅이지만 아무도 그에 대해 모르고 있습니다.”

이언 로튼 감독이 주목한 담마로카 스님의 본명은 로렌스 캐롤(Laurence Carroll)이다. 서양에서 첫 번째 승려가 된 후 아시아에서 반(反)제국주의 활동을 펼치며 영웅으로 칭송받았다.

로렌스 캐롤은 19세기 아일랜드 더블린의 이주노동자 집안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방랑가적 기질이 있었던 그는 농장 떠돌이 일꾼, 할부판매원 등으로 근근이 끼니를 때우며 사는 자유로운 사색가로 살았다. 그리고 증기선과 가축 운반차에 몸을 싣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증기선 항만 노동자가 되어 중국행 배에 올라탔다.

어수선한 안내에 따라 미얀마 양곤에 내린 캐롤은 숲속에 있는 한 사원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그는 방랑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서양인 최초의 승려가 되기까지 약 7년간 수행에 전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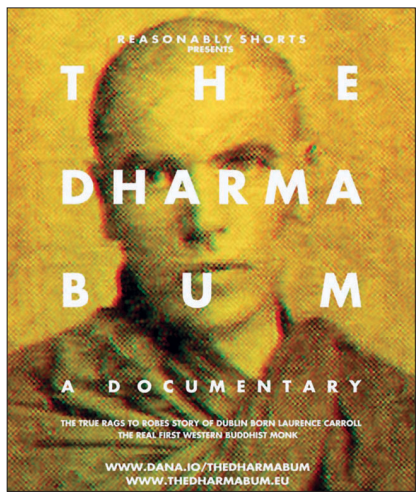
이후 캐롤은 불교의 평화로움을 좇는 대신 동남아시아에 단단히 뿌리내린 가톨릭과 엄격한 영국 식민지 규율에 저항하는 정치적 활동에 헌신했다. 그는 태국, 캄보디아, 말레이반도, 실론, 네팔 등에서 교육과 독립을 주제로 수천 번 법문을 했으며, 억압받는 이들에게 '로빈 훅' 같은 존재였다.

특히 캐롤은 미얀마 신문에 '담마로카'란 별명으로 "미얀마 지역서 기독교 선교사들이 종교적인 글을 퍼뜨리거나 파는 행위를 금한다"는 경고문을 내는 등 당시 제국주의에 필박받던 약자 편에서 싸웠다. 이밖에 미얀마와 실론지역에서 활동했으며, 싱가포르와 태국 방콕에서는 학교를 세우고 일본에는 네트워크를 형성, 네팔에서는 가르치는 활동을 했다.

그의 이런 놀라운 삶은 로렌스 콕스 교수(아일랜드 메이누스대), 알리시아 터너 교수(토론토 요크대) 등 교수진들의 5년간 연구와 노력 끝에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로튼 감독은 "캐롤은 '영국인들은 미얀마를 빼앗고 미얀마인들의 종교를 짓밟았다'는 말을 한 이유로 재판에 섰다"며 "그는 지역종교(불교)가 강력히 방어한다면 제국주의 권력의 코를 비틀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종국엔 대중의 지지를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로튼 감독은 "우리는 그가 일생



'The Dharma Bum' 제작포스터. 사진출처=crowdfit.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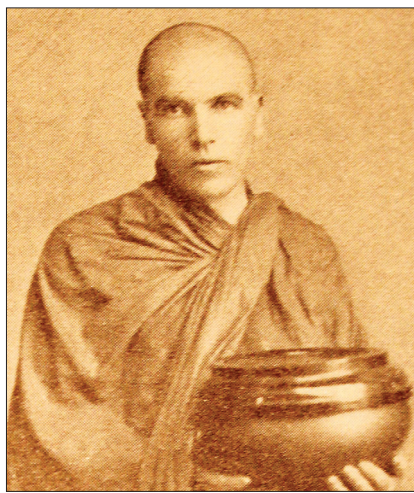
동안 정부당국에 저항한 것을 발견했다"며 "그는 매력적이고 재치 있다. 또한 이야기꾼으로서 용기 있고 임기응변에 뛰어난 인물이었다"고 덧붙였다.

흥미롭게도 1900년 이전 캐롤의 26년간 삶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가 경찰의 지능적 감시로 인해 사망한 것처럼 위장한 채 활동했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캐롤은 기독교 선교사들과 유럽 식민지 정책을 비난하는 연설을 해서 유명해졌던 것은 물론, 불교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 특히 최하층 계급에까지 자비심을 보여 존경을 받았다.

로튼 감독은 "캐롤이 여권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각국을 돌아다녔다는 점과 이름을 주기적으로 바꿨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그에 대한 중요한 증거들은 많이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캐롤에 관한 흔적은 그의 흐릿한 사진 1장과 작은 글귀들이 전부였지만, 그로부터 로튼 감독은 아일랜드인으로 캐롤의 특유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캐롤은 신문에 1만5천 루피를 내 걸



담마로카 스님. 사진출처=thebuddhistsociety

고, 성모마리아를 임종하는 사람에게 이 돈을 주겠다 글을 쓰기도 했죠."

캐롤이 사망한지 100년이 넘었지만 로튼 감독은 후대들을 위해 그의 업적이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는 캐롤이 마틴 루터킹, 레니 브루스처럼 자신의 믿음에 신임을 갖고, 열정적으로 맞서 싸우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이언 로튼 감독은 영화제작을 위해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방식)으로 후원금을 모으고 있으며, 애니메이션의 스토리는 교수진이 로렌스 캐롤의 삶을 추적, 연구한 것을 토대로 한다.

로튼 감독은 "대부분 이야기들은 교수진과 인터뷰를 통해 얻어낸 것이고, 불교와 세계사에서 잘 알려진 내용들로 구성될 것이다. 현재 크라우드 펀딩 목표는 1만5천 유로다"며 "이번 애니메이션을 꼭 불자의 삶이나 역사적인 내용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단 역경을 이겨낸 한 영웅의 이야기로 담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英 600만 불 규모 전통사찰 건립

웨스트민스터 시에... 베트남 출신 틱비엔리 스님 "3월 완공"

영국 웨스트민스터에 600만 달러 규모의 전통 불교 사찰이 최초로 생길 전망이다.

온라인 매체인 오렌지카운티 레지스터(Orange County Register)에 따르면 1월 7일(현지시간) "추아디우응(Chua Dieu Ngu) 사찰의 주지인 베트남 출신 틱비엔리(Thich Vien Ly · 60) 스님이 웨스트민스터 시에 최초로 불교 사원을 건립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찰건립 공사는 2014년 5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틱비엔리 스님과 그의 형제인 티비엔 후이 스님 등이 감독을 맡고 있으며, 2개월 내로 완공 되면 오는 6월 성대한 개원식을 준비하고 있다.

틱비엔리 스님은 "법당 계단 앞에는 대형 불상을 놓을 것이다. 또한 전통스타일의 붉은 벽돌로 지붕을 꾸미고, 외벽은 밝은 옐로우색으로 칠할 것"이라

며 "아름다운 사찰이 완공되면 웨스트민스터 지역과 어우러질 기대한다"고 전했다.

6세 때 출가한 틱비엔리 스님은 추아디우응 사찰 뿐 아니라 산 가브리엘 사찰 주지를 맡고 있다.

틱비엔리 스님은 "웨스트민스터 내에 있는 사찰들 신도수가 점점 증가하면서 수용할 공간이 부족했다. 이에 대형 전통 사찰을 건립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웨스트민스터 시에는 3만6천 베트남계 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 불자다.

트리 타(Tri Ta) 웨스트민스터 시장은 이번 전통사찰 건립에 대해 "가든 그로브와 산타 아나 등에 많은 사찰들이 있어, 이번 대형 사찰 설립은 지역사회를 위해 매우 발전적인 일"이라고 전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베트남 출신 틱비엔리 스님은 웨스트민스터에 600만불 규모의 대형 전통 사찰을 짓고 있다.

中, 독에 보관한 승려 시신 꺼냈다

1월 10일 공개... 금 입혀 '미라 불상' 보관 예정

2012년 열반한 후 원통형 독에 보관돼 있던 스님 시신이 공개됐다.

1월 10일(현지시간) 중국 남동부 푸젠성(Fujian) 진장(晉江) 시(市)에서 열린 '원통형 독을 열다(Open Cylinder)' 행사서 3년 간 독에 보관돼 있던 푸호(Fuhou) 스님 시신이 대중에게 공개됐다. 푸호 스님은 2012년 향방 94세 나이로 별세했고, 푸자오(Puzhao) 사원은 '존경의 뜻을 기억한다'는 의미로 시신을 원통형 독에 보관해 왔다.

'Mirror Online'은 12일 보도를 통해 "주목할 만한 것은 푸호 스님의 뚜렷한 형태"라며 "생전 스님의 턱수염, 눈썹 등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푸호 스님은 1919년 출생해 13살 나이에 불교에 귀의했다. 그 후 취안저우(Quanzhou)시에 위치한 푸자오 사원 주지를 맡았고, 보살행과 자비행 실천



푸자오(Puzhao) 사원은 2012년 열반 후 원통형 독에 보관해 왔던 푸호 스님 시신을 1월 10일 공개했다. 사진출처=The Telegraph

으로 지역 귀족들 사이에 숭배 대상이 되었다.

한편, 사원 측에 따르면 푸호 스님 시신은 금으로 덮여, 미라 불상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중국 불교는 전통적으로 뛰어난 고승들이 열반했을 때 '미라 불상'을 제작한 풍습이 있다.

박아름 기자

英 가수 데이빗 보위, 부처님 품으로

1월 10일 암 투병 끝에 사망... 불자로서 삶 '눈길'

영국 출신 가수 데이빗 보위(David Bowie, 1947~2016)가 암 투병 끝에 사망한 가운데, 생전 불자로서 그의 삶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데이빗 보위는 1967년 6월 발표한 데뷔 앨범 'David Bowie' 제작 중 티베트 불교에 심취하며, 불자로서 깊은 신심을 드러내 왔다. 이에 따라 해외 언론들은 그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데이빗이 불교 품으로 돌아갔다"고 일제히 애도를 표하고 있다.

온라인 언론매체 'patheos'는 1월 11

일 "전 세계가 데이빗의 급작스런 죽음으로 슬픔에 빠졌다"면서 "특히 많은 언론들이 데이빗 이래 불교와 그의 연결고리에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불교 언론매체 'Lion's Roar'는 "1976년, 티베트 불교 지도자 조감 트롱과 린포체(Chogam Trungpa Rinpoche, 1939~1987)가 스코틀랜드 삼에 링(Samye Ling) 사원에 머물던 당시 유럽에선 불교에 대한 젊은 세대들 관심이 날로 높아졌다"면서 "많은 유명인사들도 불교에 대한 애정을 표했다. 삼에 링



데이빗 보위(David Bowie, 1947~2016) 사진출처=The guardian

사원에 오기 시작했던 데이빗도 그 중 한 명이었던"고 언급했다.

이어 'Lion's Roar'는 "그는 스님이 되진 않았지만, 차임 툴쿠 린포체

(Chime Tulku Rinpoche) 스승 아래서 불교를 성실히 공부했다"면서 2001년 티베트하우스에서 열린 자신음악회 자료를 인용하고, "데이빗은 이미 13살 때 <The Rampa Story(롭삼 램과 저작)>를 읽고 불교에 대한 흥미를 키워갔다"고 설명했다.

한편, 데이빗 보위는 싱어송라이터이자 배우로서, 또 '글램록 창시자'로서 전 세계인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다. 사망 바로 전 주에는 새 앨범 '블랙 스타'를 발매하며, 암 투병 중에도 음악에 대한 식지 않는 열정을 나타내 대중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해외 셀러브리티들은 물론, 국내에선 아이돌그룹 '빅뱅(Big-Bang)'의 리더 지드래곤(G-Dragon), 배우 유아인 등이 SNS를 통해 보위를 추모했다.

박아름 기자

꿈바위 시대가 왔습니다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 자가용 운전자를 위한 무사고 안전 기도.
- 조상숭배실천회, 세종대왕선양회: 전국적으로 지회를 조직하오니 동참 바랍니다.
- 포교활동 하실 분, 공양주 하실 분.
- 지역사회에서 큰 활동 하실분 지도자 양성.
- 꿈바위에서 크게 활동하실 화주보살님 모십니다.
- 꿈바위에서는 각종 경전불사를 하오니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말 천수경, 문수보살예찬문, 보현행원품, 관세음보살보문품, 지장경, 아미타경, 금강경, 약사여래경, 대불정능엄신주, 성철큰스님 불탄범어 신년법어, 영가천도, 대학 기타
- 창업 개업 하실 분 상호, 좋은 이름 작명해 드립니다.
- 대학입시 합격 기도 상담. (지금 상담이 중요함)
- 치매 예방, 암 예방, 중풍 예방, 비만, 변비, 우울증, 코골기, 스트레스, 가족 갈등, 상담과 특별지도 및 기도.
- 가정 방문, 회사 방문, 조상 산소, 상담과 기도해 드립니다.

● 태아영가 조상영가 천도 / ● 부산 - 일본 오사카(선상천도) 확실한 천도가 됩니다. 선상에서 천도하며 가정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참여함.

꿈바위불교교육원

대전시 중구 대흥동 468-1 H·P 010-6789-5008

불법의 정수를 담은 최고의 논서!

대지도론 (전5권)

용수 著, 구마라집 漢譯, 석법성 韓譯
전5권(총 4,000여쪽)/신국판 양장
세트가 270,000원

용수보살의 불교대백과전서!

반야사상을 총괄한, 대승불교의 가장 중요한 논서!
방대한 불교사상의 바다를 헤쳐 나가는 필수 길잡이!
신수대장경과 중국 고간본을 대조하여,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현대적 언어로 풀어낸 역작!



2월 초 출간,
사전 주문 예약 중!

300질 한정 판매!

- ① 270,000원 → 243,000원 / 예약금 100,000원
- ② 교감본 원문 아래한글 파일과 PDF 파일을 담은 고용량 USB 증정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계좌번호: 농협 029-02-223253 예금주: 김시열